

어찌하면 옮겨다 집 처마 밑에 두고 / 安得移歸茅屋下
오래 오래 서로 대하여 함께 취하여 졸꼬 / 長年對此共醉眠

제12절 유적비(遺蹟碑)·유허비(遺墟碑)

1. 경흥부사공 휘 백손 유허비(慶興府使公諱伯孫遺墟碑)

울진군 북으로부터 20리 떨어진 매정공리(梅亭孔里)의 한 구역은 옛날 장씨(張氏)가 살던 곳이다. 떠 쏘는 바닷가의 언덕바지가 기이(奇異)함을 드러내 웅결함을 나타내어 인물을 낳았으니 자못 탁월(卓越)하였다. 부사(府使) 장공(張公)은 여기서 대대로 살아 지극히 가명(家名)을 떨쳐서 우뚝이 동쪽 고을 사람들의 선망(羨望) 대상이 되었다. 을사년(乙巳年)에 나쁜 신하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뒤로는 동해의 한스러운 물결이 날마다 부사가 살던 매정마을에 몰려 곡식을 가꾸던 전장(田庄)과 병사(兵史)를 판독하던 등잔은 영영 잊히려고 하기에 자손과 뜻있는 분들의 끝없는 한을 드러냈다. 하루는 부사공의 종손(宗孫) 헌규(憲奎) 후손인 환(仁煥) 영철(永喆)이 마침 남곡(南谷) 영전(永銓)이 지은 실기(實記)를 진영(軫永)[나]에게 유허비명(遺墟碑銘)을 짓도록 책임지우니 진(軫)은 늙고 무식하며 또 글 짓는 재주는 더욱더 보잘것없어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어 행장(行狀)을 살펴 글을 짓는다.

공은 나면서 똑똑하여 씩씩한 약관(弱冠)의 나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때는 성종(成宗) 신묘년(1471)[성종 기이다. 공은 스스로 지금은 조정(朝廷)과 지방이 분발하고 백공(百工)이 노력하여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세워야 할 터인데 스스로 구차하게 주어대며 자신만을 위한 녹리(祿吏)의 계책으로 산다면 이것은 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하였다. 존경하는 벗 허상국(許相國)에게 찾아가서 겉으로는 무(武)를 안으로는 문(文)을 닦아서 공자의 장(張)-이(弛)의 상황에 대처하는 도리를 터득했기에 허상(許相)은 깊이 수공했다. 정미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내금위(內禁衛)에 제수되고 경술년 갑산진병마만호(甲山鎭兵馬萬戶)가 되었다. 그때 북쪽 오랑캐가 침입해 들어왔는데 조정에서는 허공(許公)을 영안감사(永安監司)로 파견할 것을 의논하였다. 신해년에는 여진족(女眞族)이 쳐들어와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살해했다. 임금은 허공에게 특명하여 [영안감사] 겸 도원수(都元帥)로 유임(留任)하여 위엄을 떨칠 것을 명했다. 허공은 명을 받들어 병사들을 모아 공이 맡은 병마로서 적을 정벌하기 10개월 만에 적은 강을 건너 도망하셔서 공이 이끄는 병사는 승리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여 위안하며 은혜가 백성에게까지 미쳤다고 공 또한 한 계급을 올랐다. 연산군(燕山君)을 묘에 전보하여 삼수(三水)를 지켰으며 겨울에 귀향하여 경신년을 지나는 동안 용양위(龍驤

衛)로서 남북 두 곳을 두루 들어갔다.

아! 무신년의 사화(士禍)로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을 때 조정 대신들이 의리(義理)에 투철하지 못하여 벼슬을 그만둘까 망설일 때 공은 갑자년에 외직(外職)으로 강계(江界)를 지켰고 중종(中宗)이 왕위에 오른 기사년에는 경흥창수(慶興倉守)가 되었고 그 뒤 순천(順天) 원주(原州) 경흥(慶興) 등을 역임했으니 이는 날이 밝으면 길을 가고 지면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닌가. 전후 열 번을 임금을 경호(警護)하기에 소홀함이 없었고 여덟 번 고을을 지켜 치적(治績)이 많았다. 계미년에 나이 많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무자년에는 본읍(本邑)의 고산성(古山城)이 기울고 물이 없어 적을 막기 어려워 읍소(邑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상소(上訴)하였다. 신묘년에는 나이 많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아! 임금이 신하 대우를 잘하고 재상(宰相)이 훌륭히 정사를 하던 때 남긴 글이 있을 텐데 데도 지금 알아볼 길이 없으나 뒷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글자에 담긴 뜻을 가만히 살필 수 있을 것이리라. 명(銘)을 짓는다.

나라를 다스림은 변방을 잘 지키는 일. 당(唐)나라가 회(淮)와 채(蔡)를 평정했고, 한(漢)나라가 교지(交趾)와 안남(安南)을 정복했다. 백성의 안녕은 이 한 일에 드러나노니. 그 옛날 성종대왕(成宗大王) 때 북방 오랑캐가 시끄러워 임금께선 허공(許公)에 명령하여 도원수(都元帥)로 삼으시고 공께서는 영특한 용맹으로 허공에게 발탁되어 충성은 나라를 보위(保衛)했고 결심은 전쟁터에서 죽기였네. 지휘력이 탁월하여 오랑캐를 무찌름에 위세가 떨칠 때마다 서릿발이 내렸지. 또다시 은혜가 내려 따사로운 봄을 맞았네. 군사(軍士)가 개선함에 임금은 기뻐 열번이나 임금님 경호 여덟 번 성(城)을 지켜 역사가 있는 한 그 공은 빛나리라. 아! 매정 골짜기 공께서 서식(棲息)하던 곳 어려운 세월 만나 한스러움이 많았지. 서로서로 감동되긴 그 옛날과 같아서 새로 이 돌을 세우노니 영원무궁하리라.

경술후(庚戌後) 58년 정미 소춘절(小春節) 영양 남진영(英陽南軫永) 근찬(謹撰)

2. 고려 삼중대광 도첨의찬성사 근재 안축 선생 유적비⁸⁸⁰(高麗三重大匡都僉議贊成事謹齋安軸先生遺蹟碑)

주소: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월송정 옆)

지금으로부터 680년 전 서기 1312년(충선왕4) 근재 선조께서 선사와 기성(箕城) 등 여러 고을을 순찰하여 공이 있는 자를 올려 주며 공 없는 자를 내쫓으셨다. 그 후 20년 1331년(충

880. 공식명칭은 고려 삼중대광 도첨의찬성사 흥녕부원군 근재선생 문정공부군유적비서(高麗三重大匡都僉議贊成事興寧府院君 謹齋先生 文貞公府君遺蹟碑序)이다.

혜왕 원년)에 세 번이나 이곳에 오셔서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살피고 관리들을 규찰하여 현리(賢吏)를 표창하고 왕명을 받아 머물면서 취운정(翠雲亭) 기문을 짓고 또 월송정(越松亭)을 읊으셨으니 유적이 없어지지 않은지라.

기성종중(箕城宗中)의 용균(鎔均)씨와 흥렬(興烈)씨 등 여러 종원이 일찍이 동준(東濬) 종회장님께 청하여 비를 세워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선조님을 경모하는 정성이었다. 그로 인하여 회장님이 글로써 성중(誠中)에게 비문을 짓도록 책임을 지우니 이 또한 선조님을 경모하는 일이라 어찌 감히 사양하고 피할 수 있으리오. 참람(僭濫)함을 잊어버리고 삼가 지어 올리나이다.

삼가 안찰(按察)해 보면 부군(府君)의 휘(諱)는 축(軸), 자는 당지(當之)이니 1282년(충렬왕 8)에 현재 순흥인 흥녕현(興寧縣) 고향 집에서 태어나시고 겨우 약관 20세에 연달아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1324년(충숙왕 11)에 북경에 가서 원(元)나라 대과에도 급제하셨다. 이보다 먼저 원나라 세조(世祖)인 훌필열한(忽必烈汗)이 고비사막의 북쪽인 외몽고에서 일어나 유럽과 아세아 양 대륙을 통합하고 북경(北京)에 도읍을 정하여 중국의 문물을 바꾸지 않고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다.

후일 원나라 제3대 황제인 무종(武宗) 해산(海山)이 등극하여 유교를 숭상하며 도의를 중히 여기고 시호(諡號)를 추증하여 공자(孔子)라 하였다. 제도(制度)하여 이르기를 먼저 공자를 성인이란 공자가 아니면 밝음이 없었을 것이요 다음 공자(孔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아니면 법도가 없었을 것이니, 요임금과 순임금의 뜻을 서술하고 문왕과 무왕을 밝히 들어내시니 백왕(百王)의 모범이요 만세에 사표(師表)가 되나니 가히 대성지성(大成至聖)의 문선왕(文宣王)으로 추앙하였느니라.

아! 부자간의 친애(親愛)와 군신간의 의리는 영원히 지켜야 할 성인의 가르침이요, 천지의 광대함도 일월의 광명으로도 계곡물이 다하도록 오묘하고 이치에 맞게 잘한 명언(名言)이요, 오히려 높이 신성시하여 우리 원나라를 상서롭게 하였다 하니 이처럼 정대(正大)하게 추앙하여 존경함은 먼저 군주들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과 오랑캐들이 서로 호응하여 나라가 내왕(來往)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함으로 부군(府君)이 즐겁게 원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제삼갑(第三甲)인 칠인(七人)의 우두머리로 급제하셨으니 곧 이것은 천하의 장원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받은 관직은 요양로개주판관(遼陽路蓋州判官)이요. 다시 크게 쓰이지 아니하니 만약 아형(阿衡)⁸⁸¹이나 총재(冢宰)⁸⁸²를 맡겨 준다면 능히 임무를 다할 수 있었고 가히 원나라가 예의 문명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다시 문왕 무왕이 나라를 평안히 하여 감옥을 텅 비게 한 세상을 만들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 애석하다. 원나라 임금과 재상들이

881. 은(殷)나라 이윤(伊尹)이 받은 벼슬 이름.

882. 주(周)나라 육관(六官)의 우두머리.

어진이[謹齋先生]로 하여금 지혜와 재주를 능히 발휘할 수 있는 소임을 주지 아니하고 호족(胡族)과 한족(漢族)의 차별이 심하여 높은 구상을 두고 원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량을 펴지 못했도다.

부군이 고려로 돌아와 성균악정(成均樂正)이 되었으며 얼마 후 원나라 개주수(蓋州守)가 부군의 큰 그릇됨을 흠모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를 다하여 초청하였으나 우리 임금(충숙왕)이 바야흐로 중용하고 있었으므로 가서 원나라의 소임을 맡을 수 없었으며 또 개주수도 같이 일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어 가시지 아니했다.

여러 벼슬을 거쳐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에 올랐는데 1329년(충숙왕 16) 5월에 강릉도 존무사(江陵道存撫使)의 명을 받으니 해변의 여러 고을이 정치는 가혹하고 백성은 고달픈지라 밤에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시(詩)에 이르기를 백성은 도탄에 빠져있어 구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나라의 병폐(病弊)를 생각하니 놀랄 지경이라 근심에 잠겨 베갯머리에 잠 못 이루며 산속에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니 깊은 밤중이더라.

범문정공(范文正公)⁸⁸³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정의 임금 곁에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걱정되고 먼 시골에 있으면 그 임금이 걱정된다고 하였으니 나아가도 걱정, 물러나도 걱정, 그러면 언제 즐거움이 있으려나. 그가 힘주어 말하기를 천하의 걱정을 먼저 걱정하고 다음으로 천하의 즐거움을 즐겨워한다고 하였다. 부군이 원조(元朝)에 계실 때 원나라에 왕의 억울함을 호소하사 잠시라도 걱정하지 않음이 없었고 멀리 바닷가[고려]에 계실 때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면서 근심에 잠겨 잠들기 어려우니 나아가나 물러가나 모두 걱정이었다. 원나라와의 인연이 되어 원나라와 같이 즐거움을 누린 이후 즐거움을 쫓았으나 그때가 언제가 될까? 산간벽지 마을이 쓸쓸하고 황폐한 땅[草萊]에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걱정이다.

원나라에 바칠 인삼의 물량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인삼을 캐느라고 옷은 다 헐어 없어지고 농사짓는 시기마저 잃어버려 춥고 배고픔이 번갈아 찾아오니 이 또한 걱정이요. 소금 굶는 백성들의 얼굴과 모발은 그슬려 검게 타서 고달프고 배고픔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또한 걱정이다. 걱정이 쌓이고 쌓여 먼저 백성들과 더불어 왕철(往哲)⁸⁸⁴들의 걱정이 한 수레바퀴처럼 일치하였으니 대인과 군자들의 마음 쓰임과 행하는 일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저 금강산(金剛山), 총석정(叢石亭), 삼일포(三日浦), 낙산사(洛山寺), 경포대(鏡浦臺), 한송정(寒松亭), 죽서루(竹西樓), 월송정(越松亭), 망양정(望洋亭) 등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이 천태만상(千態萬象)이며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놀고 마시며 연회를 일과(日課)로 하여

883. 중국 북송 때의 명신으로 자는 문(文), 시호는 문정(文正)이었다.

884. 선철(先哲)·선현(先賢).

취하고 놀면서 정사는 버리고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죽였으나 도도한 부군의 맑고 깨끗한 뜻은 후한(後漢)의 범방(范滂)이 남비등거(攬轡登車)한 것⁸⁸⁵과 같으니 풍문을 듣고 고개를 움츠리고 숙이며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는 자가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재상이 근재(謹齋) 선생 문집인 관동와주집(關東瓦注集) 서문에서 말하기를 감격하고 분개하여 지은 작품이라고 했으며 관동지방 풍속의 이해득실과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눈 시가 열에 아홉이나 된다고 하였으니 가히 부군의 마음을 진실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크게 보인 힘이 있었고 백 세 후에도 경계하는 교훈(鑑戒)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취운정과 월송정의 두 큰 기행(紀行)은 생민(生民)들의 오랜 고통을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었고 쓰고 읊으며 즐거움을 바랐으나 부군의 즐거움과 근심을 세상이 알지 못했으며 불초(不肖)한 후손도 어찌 감히 알 수 있으리오.

부군이 관동의 9군(郡)을 위무함에 수레와 말발굽이 서로 이었지만 일찍이 제자(題字) 하나 새기지 않은 것을 어째서일까. 동중서(董仲舒)⁸⁸⁶가 말하기를 어진 자는 정의(正誼)를 다스리며 이(利)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도(道)를 밝히되 그 공(功)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저 진시황(秦始皇)은 추역산(鄒嶧山)⁸⁸⁷에 올라가 비를 세워 공덕을 칭송하고 나아가 태산(泰山)에 이르러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신라(新羅)의 사선(四仙)인 영랑(永郎), 안랑(安郎), 술랑(述郎), 난랑(鸞郎) 등이 각처에 제목(題目)을 붙여 글을 새겼으니 이는 모두 공(功)을 계산하고 이(利)를 도모하여 스스로 이름을 구(求)한 사적 부류(部類)이요 인자(仁者)가 하는 일이 못 되니 부군은 이를 취하지 아니했다.

부군의 시를 아래와 같이 삼가 써 올리나이다.

인간만사 간곳 없고 동해바다 그대론데 / 事去人非水自東
 천금같은 씨앗남아 정자술이 되었구나 / 千金遺種在松亭
 겨우살이 다정하여 서로 엉켜 풀지않고 / 女蘿情合膠難解
 어린대는 친근하여 절구짚듯 모여났네 / 弟竹心親粟可舂
 어찌하여 화랑들은 절경 속에 학을 삶았나 / 有低仙郎同煮鶴
 아서라 나무꾼은 멋없는 짓 배우지 말라 / 莫令樵父學屠龍
 머리카락 반백되어 예온 곳 다시오니 / 二毛重到曾遊地
 푸르고 푸르던 옛날 모습 부럽구나 / 却羨蒼蒼昔日容

885. 후한의 범방(范滂)이 혼란한 기주정정(冀州政情)의 안찰(按察)을 명령받았을 때 정청(澄清)한 뜻을 품고 출발한 고사.

886. 전한(前漢) 무제 때의 대학자.

887. 중국 산둥성 동남에 있는 산.

부군이 돌아가신 후 643년

서기 1991년 10월 일

후예 성중(後裔 誠中) 근지(謹識)

이동근·임삼조